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강원지부	뒤두르도서관	이미애	햇빛 두가더	고영민	문학동네	일상의 소소한 감정이 간결한 문장으로 살아난다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강원지부	작은도서관 caru	이선미	감정의 혼란	슈테판 츠바이크	문학동네	슈테판 츠바이크의 심리묘사는 정말 탁월하다. 주변에 추천한 결과 모두 만족!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속속도서관	석보경	광막한 사르가스 바다	진 리스	웅진지식하우스	19세기 소설 제인 에어에서 광녀로만 취급된 버사 메이슨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재구성된다. 당시에 제인 에어는 당연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까지 각광을 받아왔다. 작가 진 리스는 흑인 사회속에서 몰락한 소외된 여성인 크리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성이 광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부여한다. 당시의 남성중심주의 제도 안에서 그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책을 펼쳐들면 좋을 듯 하다. 작가 진 리스를 접하게 되어서 소중한 시간이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에다음작은도서관	백정희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민음사	"편한다면, 그리고 네가 그것을 찾고 기다린다면— 네 마음에 정말 정말 소중한 그런 정보에 다가가게 될 거야.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 행동에 혼란을 느끼고 감을 먹고 싶어서 그걸 역겨워 한 사람이 네가 처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점에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광주지부	책읽이도서관	유영희	컬러먼은 절대로 불어선다	김지환	문학동네	3분, 무슨일이 일어날 줄 알고..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광주지부	봄나만작은도서관	영수영	고요한 위기	이승우	문학동네	책 속 한 줄 '가로질러 올라가야 하는, 가야 하는 존재다, 인간.'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대구지부	마음도서관햇빛따라	조정은				43책(아이들과 영아의 대화) "말은 아팠어요?" "메 순간 숨을 쉬었지." "영아는 늘 그렇게 말했다. "메 순간 숨을 쉬었지."라고. 그 말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그날은 좋은 날이고 거기에 감사한다는 뜻이다.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대구지부	책마실작은도서관	김경희	비올레트, 묘지지기	발레리 페랭	엘리	*의무는 아니예요. 하지만 사람이 주어진 업무만 하고 산다면 인생이 슬프지 않겠어요?*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사무국	사무국	김경숙	데미안 프로젝트	정여울	크레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 사람, 데미안처럼 어둠에서 깨나주고, 힘을 주며, 우리의 일상을 환기내어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내 안의 셀프와 만날 수 있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사무국	사무국	김희정	문학이 필요한 시간	정여울	한겨레출판	'문학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슬픔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발굴해 모두가 볼 수 있는 언어의 햇빛이 쏟아지는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지영	안나카레리나 1,2,3	플스토이	민음사	드라마 보듯 다음 페이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마술!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조영아	나의 할머니에게	윤성희외5	다산책방	모두 내 탓이라고 느끼려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러하는 것, 할머니 이런 게 살아 있다는 거야?(101p)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노원주	헬든	렌리 데이비드 소로우	은행나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						
6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충청지부	천안시티다이 광빛도서관	이경주	야생종려나무	엘리엇 포크너	민음사	"사랑과 고통은 같은 것이고 사랑의 가치는 그걸 위해 희생한 것들의 총합이어서, 사랑을 쓴 곁에 얻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니 마찬가지로는 사실을 말이어."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강원지부	양평도서관	김영희	어떤 비밀	최진영	난다	어떤 대답은 시간을 충분히 여행하고 돌아온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개인회원	하늘을 나는 도서관	전선희	충교식	재래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나는 생존하려한다면 정.한 걸음 더 나아가한다면 더없이 좋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김나현	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창비	할머니의 여름휴가는 단순한 바다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외로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는 거 같아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다락	고은희	오베라의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	다산출판사	그는 은퇴를 바라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자기들이 일어가 될 날을 고대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지?나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일어가 되고 싶거든.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사무국	사무국	박은진	과연	사이다	반달	과연'을 음조리다보니 낯설어졌다. 과연이라는 질문을 내가 하는 사람인가?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빌리움작은도서관	장명숙	추락	J.M. 콧시	문학동네	사람은 어려워지는 것들에 익숙해진다. 여기서 더 어려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마음을 읽는 감각	구병준	(주)세상을바꾸는시간15	관계의본질은 판단이 아닌 공감이 있음을 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카프네	야베 아키코	은행나무	깨끗한방과 따뜻한 음식만으로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다산작은도서관	문신일	단 한번의 삶	김영하	복복서가	후회 없는 선택은 없고, 선택 이후의 대담만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울림작은도서관	최현선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	스스로	이바웃이북	해부학을 미술과 스토리에 접목한 부분이 흥미웠고 인체에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울림작은도서관	최현선	미술스러운 동기	박은영	IVP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으로서는 이해, 공감이 확대되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책의술작은도서관	김정미	도넛을 나누는 기분	김소형 외 19명	창비	어는 글에서 '시'가 편지에 대해 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할매	황석영	창비	생생한 체험담이 피부 속속들이 느껴진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이순미	부두에서 일하며 사색하며 에릭호퍼		동녘	단 한 차례의 공교롭게 받지 않은 에릭호퍼는, 노동하는 삶에서 자신의 언어로 삶의 철학을 펼친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청주사건아카이브도서관	이재복	뇌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파코 발보		휴머니스트	시 시대에 인간의 의식과 지능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지능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깊은 사색을 남깁니다						